

임팩트 커넥터

2026년 6월 1주

공개판

THIS WEEK POINT

임팩트 자본의 무게중심이 서구에서 아시아로 옮겨가고 있다. 임팩트 투자라는 말은 서구에서 만들어졌지만, 그 실천의 다음 장은 동쪽에서 쓰이고 있다. 싱가포르·한국·일본·홍콩의 투자자들이 인내 자본, 세대를 잇는 청지기 정신, 절제된 혁신이라는 아시아만의 차별점을 정의하기 시작했다. 한국이 그 서사에서 변방이 아니라 중심으로 호명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ESG의 무게중심이 환경에서 거버넌스로 이동한다. 처음으로 지배구조 이슈가 환경 문제를 제치고 기업 평판 위험 1순위에 올랐다. 무엇을 하느냐만큼 누가 어떻게 결정하고 책임지느냐가 평판을 가르는 국면으로 들어섰다. 보여주기식 환경 캠페인이 아니라 조직 운영의 근본 원칙으로서의 임팩트가 요구된다.

임팩트가 시험대 위에 올랐다 — 유동성과 용기. 깊은 임팩트일수록 자금이 오래 묶이는 유동성의 구조적 벽, 그리고 정치적 역풍 속에서 위축되지 않을 용기. 임팩트 자본이 이 두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향후 성장의 관건으로 떠올랐다. 한국 사회적 금융도 같은 질문 앞에서 있다.

01 헤드라인 — 이번 주 핵심 신호

임팩트 자본의 미래가 동쪽에서 쓰이고 있다

이번 주 소셜 임팩트 분야에서 가장 또렷한 신호는 임팩트 투자의 중심축이 동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임팩트 투자 전문 매체는 임팩트 투자라는 용어는 서구가 만들었지만 그 실천의 미래는 동쪽에서 빛어지고 있다고 단언했다. 싱가포르에서 한국, 일본에서 홍콩까지 아시아·태평양 시장의 투자자들이 글로벌 임팩트 생태계 안에서 아시아만의 차별점을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차별점은 세 가지로 요약됐다. 자금이 오래 묶여도 기다리는 인내 자본, 세대를 이어

가치를 물려주는 청지기 정신, 그리고 규모 경쟁이 아닌 절제된 혁신이다. 이 흐름에 동력을 더하는 것은 지역의 혁신 기업과 투자 포트폴리오를 이끄는 새로운 세대, 이른바 '지금 세대(now generation)'다. 이번 주 브리핑은 '동쪽으로 가라, 펀드매니저들이여'라는 메시지를 전면에 내걸고 홍콩을 특집으로 다루며 아시아 자본을 쫓는 글로벌 펀드매니저들의 움직임을 짚었다. 임팩트 투자의 언어는 서구가 만들었지만, 그 다음 장은 아시아가 쓰고 있다.

한국 시사점 — 아시아의 부상을 이야기하며 '싱가포르에서 한국'을 가장 먼저 호명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더 이상 글로벌 임팩트 흐름의 수입국이 아니라, 아시아 임팩트 생태계의 핵심 플레이어로 호명되는 위치에 와 있다. 인내 자본과 세대를 잇는 청지기 정신, 절제된 혁신이라는 아시아의 차별점은 한국의 사회적 금융과 임팩트 투자가 스스로의 정체성으로 삼을 수 있는 언어다. 서구의 임팩트 모델을 그대로 들여오기보다, 한국과 아시아의 맥락에 맞는 임팩트 투자의 문법을 제안하는 단계로 나아갈 시점이다. 특히 '지금 세대'라는 키워드는 한국의 청년 임팩트 창업가와 차세대 자산가·재단이 임팩트 투자의 새로운 주체로 떠오르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들이 한국 임팩트 생태계의 다음 10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한국이 아시아 임팩트 자본의 변방이 될지 거점이 될지를 가른다. 글로벌 흐름을 뒤따르는 관찰자가 아니라, 아시아 모델의 공동 저자가 되는 전략이 필요하다.

ESG의 중심이 환경에서 거버넌스로 옮겨간다

기업의 ESG 위험 지형도가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다. 글로벌 조사기관의 2026년 기업 커뮤니케이션 책임자 대상 조사에 따르면, 처음으로 거버넌스 관련 이슈가 환경 문제를 제치고 기업 평판 위험 1순위로 올라섰다. 기업 대외협력 담당자의 절반 가까이가 거버넌스를 최대 ESG 평판 위험 영역으로 꼽은 반면, 환경 위험에 대한 우려는 같은 기간 뚜렷이 줄었다. 이는 단순한 순위 변동이 아니라, 기업 윤리와 책임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환경 의제를 넘어설 만큼 커졌다는 신호다. 한 분석은 이 재편을 지속가능성을 거버넌스 우수성의 동력으로 다시 자리매김할 기회라고 해석했다. 기후·탄소가 ESG 담론을 지배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누가 어떻게 결정하고 책임지는가라는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윤리가 기업 평판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환경 성과를 앞세우던 기업들이 이제는 의사결정 구조 그 자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명해야 하는 국면으로 들어선 셈이다.

한국 시사점 — ESG의 무게중심이 환경에서 거버넌스로 옮겨가는 흐름은 한국 기업과 임팩트 생태계에 직접적인 함의를 준다. 그동안 한국의 ESG 논의는 탄소중립·친환경 같은 환경 의제에 크게 쏠려 있었고, 지배구조는 상대적으로 형식적 점검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들이 거버넌스를 최대 평판 위험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한국에서도 이사회 독립성, 의사결정의 투명성, 윤리경영, 책임성 같은 지배구조 이슈가 곧 평판과 투자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된다는 뜻이다. 임팩트 투자와 사회적 금융의 관점에서, 투자 대상의 사회적 성과만이 아니라 그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고 책임지는가를 함께 보는 거버넌스 실사가 중요해진다. 환경에서 거버넌스로의 이 전환은 한국 기업이 ESG를 보여주기가 아닌 환경 캠페인이 아니라 조직 운영의 근본 원칙으로 내재화할 것을 요구한다. 거버넌스는 이제 ESG의 끝가지가 아니라 중심이다.

불확실성의 시대, 임팩트 투자가 시험받는다 — 유동성과 용기

임팩트 투자가 구조적·정치적 시험대에 동시에 올랐다. 한 사회 혁신 전문지는 임팩트 투자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근본적인 장벽으로 좀처럼 주목받지 못한 '유동성'을 지목했다. 임팩트와 수익률 사이의 상충 여부에 논의가 집중되는 동안, 정작 더 중요한 역학은 유동성과 임팩트가 흔히 반비례한다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자산을 현금으로 바꾸기 어려울수록 임팩트는 깊어지지만, 그만큼 투자자는 자금이 묶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35억 달러 규모의 투자 자산을 8년에 걸쳐 추적한 종단 연구가 이 딜레마를 뒷받침한다. 한편 같은 주 임팩트 투자 매체는 '권위주의 시대의 용기 있는 자본'을 화두로 던졌다. 정치적 후퇴와 권위주의가 확산하는 국면에서, 임팩트 투자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구조적으로는 유동성의 벽, 환경적으로는 정치적 역풍 — 임팩트 자본이 이 두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향후 성장의 관건이다.

한국 시사점 — 유동성과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두 시험은 한국 임팩트 생태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국의 사회적 금융과 임팩트 펀드 역시 깊은 임팩트일수록 자금이 오래 묶인다는 구조적 딜레마를 안고 있고, 이는 임팩트 투자가 일부 선도 기관을 넘어 더 넓은 자본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핵심 이유다. 유동성에 대한 이번 진단은, 한국에서도 임팩트 투자의 다음 과제가 단순히 임팩트와 수익의 양립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 묶인 자금이 어떻게 유동성을 설계해 줄 것인가에 있음을 일깨운다. 임팩트 채권의 유통 시장, 중간 회수 구조, 블렌디드 파이낸스 같은 장치를 어떻게 한국 맥락에 맞게 만들지가 관건이다. 동시에 용기 있는 자본이라는 화두는, 경기 둔화와 불확실성 속에서 임팩트 투자가 후순위로 밀리기 쉬운 한국 현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임팩트 자본의 역할이 더 절실해진다는 관점이 필요하다.

임팩트가 금융을 넘어 '교육'과 'SDGs 측정'으로 확장된다

소셜 임팩트가 투자라는 영역을 넘어 교육과 측정의 제도로 번지고 있다. 한 사회 혁신 전문지는 '체인지메이커 대학'이라는 화두로, 사회 혁신을 대학 교육에 내재화하려는 글로벌 움직임을 조명했다.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헌신해 온 글로벌 비영리 단체와 그 대학 이니셔티브가 전 세계 대학에 사회 혁신을 심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임팩트가 일부 투자자의 일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교육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아가는 흐름이다. 측정의 영역에서도 변화가 보인다.

싱가포르발 협업 프로젝트 '지속가능 이벤트 목표(Sustainable Event Goals)'는 비즈니스 이벤트가 만들어내는 임팩트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직접 연결하는 틀을 제시했다. 행사 하나하나가 만들어내는 사회적·환경적 효과를 추상적으로 두지 않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표 체계에 끼워 맞춰 비교 가능하게 만드는 시도다. 임팩트가 추상적 선의가 아니라, 교육으로 길러지고 국제 표준으로 측정되는 구체적 제도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시사점 — 임팩트가 금융을 넘어 교육과 측정으로 확장되는 흐름은, 한국 임팩트 생태계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두 가지 인프라를 가리킨다. 첫째는 교육이다. 체인지메이커 대학 사례처럼, 사회 혁신과 임팩트를 일부 동아리나 특강이 아니라 정규 교육과정에 내재화하는 시도가 한국 대학에도 필요하다. 다음 세대의 임팩트 창업가와 투자자는 교육에서 길러지기 때문이다. 둘째는 측정이다. 비즈니스 이벤트의 임팩트를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연결하는 싱가포르의 시도처럼, 한국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국제 표준으로 측정·보고하는 역량이 임팩트 조직의 핵심 경쟁력이 된다. 측정되지 않는 임팩트는 투자받기도, 확산되기도 어렵다. 임팩트를 교육으로 기르고 표준으로 증명하는 두 축을 함께 세울 때, 한국의 사회 혁신은 선의의 영역을 넘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자리 잡는다.

02 세계 임팩트 현장 — 글로벌 벤치마크

다른 나라의 임팩트 생태계는 지금 무엇을 움직이고 있는가. 한국에 시차를 두고 닿을 만한 해외 신호를 모았다.

- **홍콩 — 아시아 임팩트 자본의 새 허브.** 이번 주 브리핑은 홍콩을 특집으로 다루며 아시아 자본을 쫓는 글로벌 펀드매니저들의 발걸음을 짚었다. 인내 자본과 세대를 잇는 가치, 절제된 혁신이라는 아시아의 강점이 결집하는 거점으로 홍콩이 부상하고 있다.
- **싱가포르 — 임팩트를 국제 표준으로 측정하는 실험.** 비즈니스 이벤트의 임팩트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직접 연결하는 '지속가능 이벤트 목표' 프로젝트가 싱가포르에서 출발했다. 추상적 선의를 표준화된 지표로 바꾸려는 측정 인프라의 진전이다.
- **글로벌 — 거버넌스가 평판 위험 1순위로.** 기업 평판 위험의 1순위가 환경에서 지배구조로 처음 역전됐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결정하고 책임지느냐가 평판을 가르는 시대로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 미국 — 대학 교육에 사회 혁신을 심다. 사회 혁신을 정규 교육과정에 내재화하려는 '체인지메이커 대학' 움직임이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다음 세대 임팩트 주체를 교육에서 길러내려는 흐름이다.

03 딥다이브 — 임팩트가 '선의'에서 '구조'로 옮겨가는 법

이번 주 신호를 관통하는 한 줄은 이것이다. **소셜 임팩트의 경쟁력이 '감동적인 이야기'에서 '단단한 구조와 제도'로 옮겨가고 있다.** 아시아로 이동하는 자본, 거버넌스로 이동하는 ESG, 유동성을 묻는 투자 논쟁, 교육과 측정으로 번지는 임팩트 — 표면적으로는 따로 노는 이야기 같지만, 셋을 관통하는 본질은 하나다. 임팩트가 더 이상 선한 의도의 표명에 머물지 않고,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측정되고 회수되는가라는 구조의 문제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임팩트는 종종 '좋은 일을 한다'는 서사로 소비됐다. 사회 문제를 풀겠다는 선언, 감동적인 수혜 사례, 따뜻한 브랜드 이미지가 임팩트의 언어였다. 이 방식은 공감을 얻는 데는 강력하지만 치명적 약점이 있다. 측정되지 않고, 자금이 한 번 묶이면 풀리지 않으며, 의사결정 구조가 불투명하면 신뢰를 잃는다. 선의에만 기댄 임팩트는 그 선의가 식는 순간 무너진다.

반대로 '구조로 단단해진 임팩트'는 다르다. 사회적 가치를 국제 표준으로 측정하고, 묶인 자기에 유통 시장과 중간 회수 구조를 설계하며,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명한다. 임팩트 조직은 '좋은 일을 한다고 말하는 곳'에서 '좋은 일을 어떻게 하는지 증명하는 곳'으로 바뀐다. 그래야 더 넓은 자본을 끌어오고,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으며,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구조화가 임팩트의 따뜻함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는 점이다. 임팩트의 구조화는 측정 지표 하나, 회수 장치 하나, 투명한 의사결정 한 단계에서 시작된다. 핵심은 선의의 크기가 아니라 그 선의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설계다. 가장 먼저 자신의 임팩트를 구조로 바꾸기 시작한 조직이, 몇 년 뒤 가장 멀리 간다.

04 한국 임팩트 현장 — 지금 한국에서 움직이는 신호

해외 흐름이 추상적 담론에 머무는 동안, 한국 현장에서는 임팩트가 이미 구체적 인프라로 움직이고 있다.

복지·후원·식권을 하나로 — 나눔비타민의 사회적 핀테크 실험

이번 호 한국 현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신호는 사회적 핀테크 스타트업 나눔비타민의 부상이다. 나눔비타민은 복지 예산과 후원금, 식권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서비스로, 임팩트 투자·액셀러레이팅 기관 MYSC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며 사업을 확장한다. 그동안 복지 예산, 민간 후원금, 식권 같은 자원은 서로 다른 주체가 따로 운영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닿기까지 새고 끊기는 구간이 많았다. 나눔비타민은 흩어진 흐름을 하나의 디지털 인프라로 통합해, 자원이 더 정확하고 투명하게 수혜자에게 가닿도록 설계한다. 주목할 점은 이 회사에 투자한 곳이 한국을 대표하는 임팩트 투자·액셀러레이터 MYSC라는 사실이다. 사회 문제를 기술로 푸는 스타트업과 그 가능성에 인내 자본을 대는 임팩트 투자기관의 결합이, 복지 전달 체계라는 공공의 빈틈을 메우는 구체적 사례로 작동하고 있다. 임팩트가 거창한 담론이 아니라 일상의 인프라에서 움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한국 시사점 — 이 결합은 한국 임팩트 생태계의 한 전형을 보여준다. 사회 문제를 기술로 풀려는 스타트업과, 그 가능성에 인내 자본을 대는 임팩트 투자기관이 만나 사회적 가치와 사업성을 동시에 키우는 구조다. 특히 복지·후원·식권처럼 공공과 민간에 흩어진 자원을 디지털로 연결하는 영역은, 한국 사회가 가진 촘촘한 복지 인프라와 높은 디지털 보급률이 만나 임팩트가 크게 발휘될 수 있는 지점이다. 공공이 미처 채우지 못한 전달 체계의 빈틈을 사회적 핀테크가 메우는 사례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며, 이는 앞서 살펴본 아시아 임팩트 자본의 부상이라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복지가 두텁고 디지털 전환이 빠른 한국은, 이런 사회적 핀테크가 실제 임팩트와 사업성을 동시에 입증하기에 유리한 토양을 가진 시장이다. 사회적 핀테크는 한국 임팩트 투자의 가장 유망한 축 가운데 하나로, 지속해서 관찰할 가치가 있다.

기술·상생·ESG 삼박자 — 케이뱅크의 실험

또 다른 한국 현장 신호는 케이뱅크다. 케이뱅크는 기술과 상생, 그리고 ESG라는 세 박자를 결합해 인터넷은행으로서의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 디지털 금융의 효율성을 추구하면서도 사회적 가치를 경쟁력의 한 축으로 끌어안았다는 점에서, 임팩트가 주류 금융 안으로 들어온 한국적 장면으로 읽힌다. 빠른 기술 혁신만으로 경쟁하던 인터넷은행이, 이제는 협력사·고객과의 상생과 ESG 경영을 경쟁력의 한 축으로 함께 내세운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디지털 금융의 효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양립시킬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한국 금융권의 실험으로 읽힌다. 비용 절감과 속도만을 무기로 삼던 디지털 금융이, 신뢰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갖춰야 지속가능하다는 인식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은행은 출범 당시 메기 효과로 금융

경쟁을 흔들었지만, 이제 그 다음 단계의 차별화 무기로 사회적 책임을 꺼내 든 셈이다. 앞서 살펴본 ESG의 무게중심이 거버넌스로 이동하는 흐름이 한국 금융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사례이기도 하다.

한국 시사점 — 인터넷은행의 기술·상생·ESG 삼박자는, 임팩트와 ESG가 더 이상 사회적 기업만의 의제가 아니라 주류 금융의 경쟁력 요소로 들어왔음을 보여준다. 특히 앞서 짚은 거버넌스 중심 ESG 흐름과 맞물려, 금융기관이 기술 경쟁력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갖추는 것이 평판과 신뢰의 핵심이 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런 변화가 규제나 외부 압력이 아니라 경쟁력이라는 동기에서 나온다는 사실이다. 상생과 ESG가 비용이 아니라 차별화의 무기가 될 때, 그 변화는 비로소 지속가능해진다. 규제 대응이나 홍보 차원의 ESG는 쉽게 형식에 그치지만, 경쟁력의 동기에서 출발한 ESG는 조직 운영에 깊이 뿌리내리기 때문이다. 이 사례는 임팩트와 ESG가 한국 산업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금융을 넘어 다른 산업으로도 번질 흐름이다.

05 곧 다가올 — 한국 임팩트 생태계가 미리 준비할 것

해외에서는 본격화됐지만 한국에는 아직 본격적으로 도착하지 않은 신호다. 사회 임팩트 분야에서 한국은 글로벌 흐름을 대체로 6개월에서 1년 남짓의 시차로 뒤따르는 구간에 있어, 미리 준비하면 그만큼 앞설 수 있다.

- **거버넌스 중심의 ESG 재편.** 글로벌 기업이 지배구조를 최대 평판 위험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흐름은 한국에도 곧 닿는다. 이사회 독립성·의사결정 투명성·책임성을 지금부터 정비해 두면, 거버넌스가 평판과 투자 판단의 기준이 됐을 때 가장 빠르게 적응한다.
- **임팩트 자금의 유동성 설계.** 묶인 자금을 푸는 유통 시장·중간 회수 구조·블렌디드 파이낸스 논의가 곧 한국 사회적 금융의 핵심 과제가 된다. 미리 구조를 설계해 둔 펀드일수록 더 넓은 자본을 끌어올 수 있다.
- **임팩트의 교육 내재화.** 사회 혁신을 정규 교육과정에 심는 시도가 한국 대학에도 번질 신호다. 다음 세대 임팩트 창업가와 투자자를 길러내는 토대를 지금부터 쌓아야 한다.
- **국제 표준 임팩트 측정.** 사회적 가치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연결해 표준으로 측정·보고하는 역량이 임팩트 조직의 경쟁력이 된다. 측정 체계를 먼저 갖춘 조직이 투자와 신뢰를 먼저 얻는다.

06 에디터스 노트

이번 주 신호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소셜 임팩트의 경쟁력이 '얼마나 선한가'에서 '얼마나 잘 설계됐는가'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임팩트 자본의 무게중심은 서구에서 아시아로 이동하며 한국을 중심으로 호명했고, ESG의 중심은 환경에서 거버넌스로 옮겨가 '무엇을 하는가'만큼 '어떻게 결정하고 책임지는가'를 묻기 시작했다. 임팩트 투자는 유동성이라는 구조적 벽과 권위주의 확산이라는 정치적 역풍 앞에서, 묶인 자금을 어떻게 풀고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담대해질 것인가를 시험받고 있다. 그리고 임팩트는 교육과 측정이라는 제도로 번지며, 다음 세대를 어떻게 길러내고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했다.

공통점은 분명하다. 임팩트는 이제 선의의 구호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구조와 제도로 단단해질 것인가라는 갈림길에 서 있다. 한국 현장에서도 같은 흐름이 작동한다. 복지·후원·식권을 하나로 잇는 사회적 핀테크, 기술·상생·ESG를 결합한 인터넷은행은, 임팩트가 한국에서도 일부 사회적 기업의 일을 넘어 금융과 기술의 주류로 들어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임팩트 생태계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도 여기서 나온다. 우리는 좋은 일을 한다고 말하는 데 그칠 것인가, 아니면 그 좋은 일을 거버넌스와 유동성과 측정이라는 단단한 인프라로 증명할 것인가. 시험받는 시대일수록, 임팩트의 진짜 실력은 구조에서 드러난다. 한국이 글로벌 흐름의 수입국에서 아시아 모델의 공동 저자로 도약할 기회가, 바로 지금 열려 있다.

본 리포트는 그린임팩트에서 제공합니다.

2026년 6월 1주 · 공개판 · 임팩트 커넥터